



사설

명동성당의 단식농성을 보며 -제2의 '6월항쟁'을 이루어내자

조선대 교직원장기 이철규군의 사제가 치참한 상태로 발견된 지 이미 20여일이 지나고있지만 전국 각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사안명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현재 명동성당에서는 본교생 30여명을 포함한 전국 1백여명대 6백여명이 26일(부)부터 '노경관선서'와 '이철규군 사안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노상 단식농성중이다. 이렇게 모든 의문사의 정황이 그렇듯이 이번 사건도 일련의 단합행위의 시나리오에서 발생한 많은 의문점과 교회의 독립성 파괴에 대한 우려를 전적으로 배반,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지역을 제외하고는 이군의 사안에 대한 유인물 한장 붙이지 못한 정도로 그전선상이 온전하고 자라는 의로운 분위기를 조성·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명동성당에서의 농성은 이런 현정권의 폭력적인 은폐조작에 맞서 목숨을 건 '단식'까지 불사할 수 밖에 없었던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행방이후 이 명동성당에서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은 만물이 4.19부터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후단이 아닌 제철철 모습으로 발전된 김주열군, 80년 광주학생의 투쟁이 한 살속에 있던 민주쟁쟁, 5공화국까지 최후의-공산으로 인한 청년학생들의 죽음 이그리다.

민주주의를 사랑한 대가가 죽음으로 주어진다는 세계사적 예에서, 또는 강철로 부러뜨려 버린 민주적 권력전선에서나 양상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번 이철규군 사안사건도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하는 권력의 권위이며, 세상 정권이 존재하는 한 풀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필연적으로 발전한다'는 교묘한 전리는 거역할 수 없는 명제이다.

현정권은 이군의 사안을 은폐하고 5공부활을 재촉할수록 제2의 6월항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제2, 우리 학우들이 명동성당에서 육체적 안락과 일선의 평안을 위하여 6월경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오늘 이군의 죽음을 가슴에 안은 우리가 슬픔과 비애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각급당부의 엄중함속 진박함을 가진 힘으로 단식농성자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는 결연정이다.

▲사서(史書)의 역사는 가만 앉아서의 역사(史)라고 일컫는 사건들을 접하게 된다. 자유주의 교양에 일치적으로 역사를 왕정복고로 되돌리려 했던 유신정권의 실패마나, 외국으로 건너와 농민을 학살하던 조선말의 역사...

▲반동의 역사, 반 호르는 강과 같은 역사의 물결을 파고려 역사의 시계추를 되돌리는 무한한 도구(?)가 만들어낸 사극(?)들이라는 타임머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소수의 횡포와 함께 '난신(亂身)'이라는 다수중주의 폭력적 그리고는 다수중주의 폭력적 역사의 양극화를 하향으로 끌고가는 것이다.

▲흔히 말하길 새끼가 있기에 밤을 지새다 고 한다.

▲반동의 밤, 하지만 이밤은 단지 해가 뜨길 기다리며 민심을 바라만 본다고 재질로 봐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열정이 어둠을, 산너머부터 떠오르는 이 밤을 더욱 달구고 있다. 눈물만 다수라는 이 밤을 열이 이 밤을 불꽃이, 반동의 역사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 교묘한 '세바의 시간'을 되로써 하여야 한다. (섭)

전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것이다. ▲시간은 끝없는 역사의 시계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되는 '반동의 역사'는 너무 많은 점점인들을 삼키고 그 비를 흘리게 했다.

그들의 열정이 어둠을, 산너머부터 떠오르는 이 밤을 더욱 달구고 있다. 눈물만 다수라는 이 밤을 열이 이 밤을 불꽃이, 반동의 역사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 교묘한 '세바의 시간'을 되로써 하여야 한다. (섭)

교직원 노조건설의 의의와 전망

I. 들어가는 말

병든 한국교육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중심은 이제 한국사회의 전체의 몸부림으로 확대되고 있다.

5월28일, 전국교원의 교직원노조 건설대회와 정부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던 전기 전국의 여론은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부나 국회의 정치일변조도 여기에 맞춰야 할 상황이라고 있다.

교직원노조의 건설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부각이 될까? 마의 승자였던 시한폭탄이 터지더라도 한 뜻한 질서가 조성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초중고 교사들이 교직원노조 건설을 준비해온 것은 학우들이 아니었다. 가깝게는 87년부터 시작된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이 3년째에 이르러, 좀더 멀리는 80년대초부터 YMCA 교육운동이 교직원노조건설이라는 귀결점을 이룬 것이다. 아니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60년 4.19교원노조운동이 공화당정권에 의해 좌절된지 28년만에 다시 재연되는 것이다. 교직원들의 노조화건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전망은 어떠한가? 이는 교육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과는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심사하기에 차분하게 의미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II. 교직원노조건설 투쟁의 의미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일어 '중산층이 거리를 쏟아져 나갔다'고 대대적인 보도를 행하였다. 이것은 유감스럽지도 잘못된 말이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회색이었다. 그들은 중산층이 아니라 최신타라(사부적노동자)들이었다. 그런데 왜 중산층이라고 강조할까?

중산층의 위상은 중산층이대 유희기교육의 쇠퇴이다. 그것은 이 사회 기층민중들의 변혁의지

를 가늠하는 척도를 위한 틀을 출발시켜 그 전체조건을 말한다든 말든이다.

참교육이란 민족민주교육을 말한다. 또 민주교육을 말한다. 참교육은 우리교육이 (신)진리 지교육을 극복하고 민족교육, 국민교육을 수행하는 것이다.

참교육은 군사독재정권의 수단으로 전락된 비민주적 교육을 극복하고 민주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참교육은 또한 독재정

권의 몰락과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제도교육을 민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교육여부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참교육은 신민주 상황을 극복하고, 군사독재정권을 극복하고, 또 독점자본의 지배를 극복하는데 봉사하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참교육은 온전히 민주적이며 정치와 예술적으로도 그 지향점을 잃지 않고 거대한 전진전의 형태로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투쟁은 교직원 자신만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

는 것이다. 참교육의 뜻은 옳았다. 이제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교직원 노조 건설은 참교육 실현위한 디딤돌 교수·학부모등 사회 각계각층과 공동투쟁 필요

교직원노조건설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교원들이 계급적으로 제각각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 다산정약용과 봉건사회 농민계급

다산정약용에 관한 연구가 오 늘의 학계에까지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그가 당면한 세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단호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 이 아닐까 싶다. 그 이유는 봉 건사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단호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 이 아닐까 싶다. 그 이유는 봉 건사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단호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 이 아닐까 싶다.



다산정약용에 관한 연구가 오 늘의 학계에까지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그가 당면한 세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단호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 이 아닐까 싶다. 그 이유는 봉 건사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단호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 이 아닐까 싶다.

다산정약용에 관한 연구가 오 늘의 학계에까지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그가 당면한 세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단호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 이 아닐까 싶다. 그 이유는 봉 건사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단호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 이 아닐까 싶다.

## 사회모순 근원을 토지문제에 놓고 노동계급입장의 개혁사상을 역설

「여전제」가 단순히 이적제 제정체 지향의 결과물이 아닌, 양반계급과 지주들의 착취를 완전토지개혁을 위한 단호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 이 아닐까 싶다. 그 이유는 봉 건사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단호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 이 아닐까 싶다.

다산정약용에 관한 연구가 오 늘의 학계에까지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그가 당면한 세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단호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 이 아닐까 싶다. 그 이유는 봉 건사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단호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 이 아닐까 싶다.

## 실학연구의 기념비

최근 회익환의 저서 「실학과 정다산」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실학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다. 실학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다. 실학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다.

## 실학연구의 기념비

최근 회익환의 저서 「실학과 정다산」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실학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다. 실학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다. 실학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다.

## 학술지행

본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주최로 지난 5월 22일(월)부터 열리고 있는 「제1기 민족주파학 교」는 이것이 미래 민족교육 형식의 첫시도라는 데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참교육 실현의 배움터

본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주최로 지난 5월 22일(월)부터 열리고 있는 「제1기 민족주파학 교」는 이것이 미래 민족교육 형식의 첫시도라는 데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실학과 정다산

최근 회익환의 저서 「실학과 정다산」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실학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다. 실학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다. 실학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다.

## 실학과 정다산

최근 회익환의 저서 「실학과 정다산」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실학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다. 실학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다. 실학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다.

## 인간과 호흡하는 첨단기술

휴먼테크의 산실, 휴먼테크의 주역들

2000년 세계 초일류기업을 목표로 「제2의 창업」을 선언한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기술강국으로 이끌어온 삼성의 힘은 삼성인들의 끈질긴 집념과 개혁정신, 그것입니다. 휴먼테크의 산실, 삼성기술연구소에는 행복한 인간생활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꿈이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정예연구원이 펼치는 인간을 위한 테크놀로지- 휴먼테크의 목표는 바로 「인간행복」입니다.

휴먼테크의 산실, 휴먼테크의 주역들

2000년 세계 초일류기업을 목표로 「제2의 창업」을 선언한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기술강국으로 이끌어온 삼성의 힘은 삼성인들의 끈질긴 집념과 개혁정신, 그것입니다. 휴먼테크의 산실, 삼성기술연구소에는 행복한 인간생활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꿈이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정예연구원이 펼치는 인간을 위한 테크놀로지- 휴먼테크의 목표는 바로 「인간행복」입니다.

휴먼테크의 산실, 휴먼테크의 주역들

2000년 세계 초일류기업을 목표로 「제2의 창업」을 선언한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기술강국으로 이끌어온 삼성의 힘은 삼성인들의 끈질긴 집념과 개혁정신, 그것입니다. 휴먼테크의 산실, 삼성기술연구소에는 행복한 인간생활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꿈이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정예연구원이 펼치는 인간을 위한 테크놀로지- 휴먼테크의 목표는 바로 「인간행복」입니다.

휴먼테크의 산실, 휴먼테크의 주역들

2000년 세계 초일류기업을 목표로 「제2의 창업」을 선언한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기술강국으로 이끌어온 삼성의 힘은 삼성인들의 끈질긴 집념과 개혁정신, 그것입니다. 휴먼테크의 산실, 삼성기술연구소에는 행복한 인간생활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꿈이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정예연구원이 펼치는 인간을 위한 테크놀로지- 휴먼테크의 목표는 바로 「인간행복」입니다.



# 입거리문화

자변 6년만에 돌아오니 이곳은 벌써 제2차로 바뀌었고, 저주에서 입거리로인한 열광감없이 공부하던 자변이 이곳 고향에서부터는 달라진 옷차림 때문에 계속 두드러짐을 받아야했다. 그것은 경치와는 무관한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속을 찌릿하고 보편적 30대 초반의 문화의 구도적 색채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외국산료가 도입되기 시작한 건 지난 79년부터이다.

## “현재의 입거리문화가 우아하게 「노는것」을 조장한다면 우리옷의 미의식은 「노동의 아름다움」이다”

물론 이때는 국산섬유제품의 기술향상과 수출확진을 위하여 이른바 「노는것」을 조장하고 있는데 25% 수출의 의무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3~6%라는 비싼 기술사용료(로열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류의 경우 1~3% 기술사용료) 이전은 거의 아무런 지출도 없던 내수시장만을 공략해 사치품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구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교복차별화(82년), 친문적 탈북전 보급 등으로 외국섬유제품의 수출을 세로로 막아놓은 것도 한 몫을 했다. 뿐만 아니라 80년 7월 1일 부리는 기술요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순수상품」이 가능해지면서 외국산의 무비밀한 장래가 가속되었다. 특히 86년이 이후부터, 88 올림픽을 계기로 이 땅의 세계시장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88올림픽을 전후해 외국에서도 최고급으로 손꼽히는 유

화공약품으로 탈색기능을 하는 물방울(스노우)은 진)는 피부염, 피부암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되는 등 인체에 극히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판매를 위해 전제 정치 소비량의 9할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Ⅲ. 민족자주 입거리 문화의 정립

본래 오만한 제은유지와 보다 능률적인 생산활동을 위하여 입었던 것이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옷은 실용성과 함께 옷을 입는 사람의 취향, 인격, 사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일제에 의해 파괴되고 양기에 대해 미 갈라버린 「우리옷」의 기본 모양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형, 집주조, 자연환경, 노동량과 연결되면서 활동에 편리한 것을 으뜸으로 삼았다.

옷감의 폭은 그대로 살리면서 단위의 낭비를 없앴고, 평면적 단위를 그것을 주름이나 끈으로 고정시켜 실용적으로 장식함으로써 풍요로움을 얻었다. 또한 기능면에서도 「트림」을 등으로써 과의장화를 편리하도록 하고 보행이나 동작, 보은, 세탁, 위생에도 효과적이었다.

## Ⅳ. 맺음말

입거리 문화에 대한 이러한 자각으로 「우리옷 입기 운동」(생활문화연구소 주최)이 5~6년 전 부터 실시되어오고 있다. 그리하여 민족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족의 현실이 담긴 옷을 입기를 주장하면서 활동에 편리한 「입옷」 함께 어울리는 「놀이옷」, 우리의 민족성과 민주주의의식이 담긴 뜻깊은 옷을 만들어 내리 보급했다. 그것은 생활문화운동의 일환으로 확산되며 「스스로 만들어 입는」 우리옷 문화의 향배라는 한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옷을 통해 침투하는 거대한 문화에 대한 저항적의 힘도 있었지만 그 옷을 통해 우리의 자주·민주·해방·통일운동의 대를 전승을 전파한다는 더 넓은 의미가 있다. 정권 변경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임을 연구하는 민족자주 연구의 열기가 된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신바람나는 삶



## 먹거리문화

나 요즘은 비만증이 점점 높아지고 싶지도 않 것같이 상회 위함 때문에 금지된 것이 무려 40여 종류이 되며, 거금 사용도 막았지만 더구나 우리는 「알뜰한 생계 1회」라는 기막힌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생아 4명이 출산율의 6%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왜가늘성이 높은 과학발전은 왜 사용되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바로 식량개발의 이익을 최대로 보강하기 위해서이다. 이 때문에 석사와 향료는 먹거리로 화장을 시켜서 우리에게 놓이기 위한 것이다. 방사능, 살균제는 상용식품의 부가치제를 높이 비싸게 팔기 위한 것이다.

2) 외식의 이익이 관청되는 먹거리 문화

—허균까지 침투하는외세 국내 식량개발은 대부분 외국의 다국적기업과 각-각진 연계를 맺고 있다.

이국산료를 사용하며 높은 기술사(노르만)를 지불하거나 이에 반조기적인 한국제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예:코카콜라) 또 국내 식량개발

## Ⅱ. 입거리 문화의 현실

제5공화국 기간동안 우리의 입거리 문화는 극도로 사치스러워졌다. 한 유행어의 표현을 빌

다 내이고 있으며, 기리를 틀서 보하는 청소년들의 입거리 문화는 일본풍을 그대로 옮겨온 듯 하다.

문제는 고급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소하고 한강에 걸췌는 것을 입으며는 합리적 사고에까지도 국내 독점제벌의 진출은 눈부시다. 외산 유행품은 대우의 구매심리를 부추긴다. 전종의 재가조가 우리에게 다시금 중요 수 밖에 없다. (전제 국민적 노동자-농민이 82%)이래 등장하는 것이 「E-랜드」 「미스미스」 「브랜마노」 등 서민을 대상으로 광범한 구매층을 형성하는 「내셔널 브랜드」이다.

외국계기업이 조장하는 현재의 「입거리 문화」가 허리를 굽혀고 성취해온 덕분에 「노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서 유래하는 미의식은 「노동의 아름다움」이다. 인화가 변화가 만들어낸 우리옷의 모양새가 그 답이다.

## Ⅰ. 머리말

「이후 세 세대가 좀 봐, 아니 날씨가 좀 무뎠기로서니 저렇게 우르르하고 사시나무 떨듯 하고 있어?」

「그렇게 말어요, 요새 젊은이들은 조금만 더워도 땀까지도 조금만 주워도 지면다니까, 도대체 끈기가 없어?」

「자기 체력이 약해서 그런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강할뎠지만 난 아직도 한겨울에도 내복 안 입어요!」

「그때 요새 젊은이들은 걸은 걸은 부하나 번드르르한 체력은 훨씬 현호요!」

「그게 다 음식 때문 아니냐?」

환상은 특히 넘어 보이는 텍사스산과, 합순한 알짜리 야채의 대패는 이 시대 먹거리가 넘어간 현상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 우유 먹고 큰 아이가 아니라 마크, 큰 아이보다 당지는 더 크데, 거대한 흰 쌀떡이저는 더 커 마한가서로, 더구

## 재고해야 할 결혼사업

본래의 상품화가 실그러은 여류의 신복이 이루어지는 이후 무언의 시내 대부분은 예석같은 은 문선정신을 이루며 다우이 신혼부부 배움(?)해냈다. 이 단광을 보면서, 혹은 경험에서 얻어지는 「결혼」은 경험장과 축의금을 손에 들고 그리 이러한 예석을 찾아가, 복직복한 인파에서 신랑의 이름을 찾아 떠돌다가 시간이 쫓겨 10만도 채 안되는 예석을 바라보고는, 그릇수 세자거나 「실형망」을 떠는 일이다. 또한 당사자들에게는 이전의 열쇠3개에 추가된 문도인담과 지름길 보편을 금과 열쇠를 통장하는 「키(Key)의 사막」(?)인 지도 모른다.

인간 생활에서 「혼례」는 순전한 사생활로 이루어지는 가장 신성하고 행복해야 할 의식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금반지류와 허위의식에 것 같은 결혼이라는 것보다 화려하게 치장되는 오늘날의 결혼식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서구식의 혼례문화가 처음 이 땅에 들어온것은 일제시대였다. 전권한 정신문화가 분리된 채 유입된 형식적인 서구문화의

민중의 삶에 근거한 통일 혼례판은 우리 민족의 본질적 신명을 일깨워

리 전통에 일대 혼란을 가져왔고, 이후 미군 진주와 함께 제국주의 문화풍조의 일환으로 대중적 확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결국 민중의 삶이 하나가 되어 진정한 문화를 공유하고 즐겼던 「혼례」는 저절로 서구문화에서 「혼례」를 잃은 수 밖에 없었다. 더불어 서구의 혼례문화는 발견 중심적 사고, 개인주의, 영

수주의 신화에 일조하는 지혜이 대를 물려주는 복종이라는 결과를 빚게된다.

이러한 폐쇄에서 우리의 견강한 양식을 되찾자는 움직임으로 「전통 혼례」가 대두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통 혼례」의 원전과, 축두리들은 풍요의

민중의 삶에 근거한 통일 혼례판은 우리 민족의 본질적 신명을 일깨워

민중의 삶에 근거한 통일 혼례판은 우리 민족의 본질적 신명을 일깨워

민중의 삶에 근거한 통일 혼례판은 우리 민족의 본질적 신명을 일깨워

통일 혼례판(이하 통일 혼례판)이다. 양질의 허위라는 사관까지도 제약을 받았던 조율들의 눈높이를 혼례식과 공동체적 삶의 형태인 「부락」을 오고에 맞게 재구성해 재창조한 이 「통일 혼례」는 최근 각지역에 확산되고 있으며 각 대학 대개제의 행사가 마련되기도 한다. 지난 25일에는 성신여대에서 「통일 혼례」가 치러졌고, 27일에는 배기환선생의 말이 성균관대 명랑장에서 「통일 혼례」를 올렸다.

통일 혼례판은 길놀이와 시작된다. 풍물패의 길놀이는 혼례판에 알리고 이목을 끌기 위해 혼례를 띄우고, 이어 장미를 물리내고 직장을 정리하는 방식이어서 행렬제, 꽃을 받침으로써 본격적인 혼례식이 시작된다. 두루마기 차림으로 두들음 타고 등장하는 신랑과 처

# 파고다외국어학원

바로 당신은 이 국가의 인재입니다  
파고다는 지금 당신에게 있습니다

외 국어 능력은 국가발전의 원동기입니다. 우리는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많은 분이 이상에 희망을 걸고 계시지만 외국어교육의 환경만 좋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등록번호: 파고다외국어학원(비영리) 등록번호: 274-4000-6821

# Guideposts

진정한 삶의 길을 밝혀주는 책!  
가이드포스트 단행본 시리즈와 만나십시오!

1) 비전 Vision  
23년 동안 한국을 가이드포스트에 실려온 노년 멘토들 팀 박사의 인생 지침서로 사령의 눈으로 나를 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의 길잡이가 될 가이드포스트입니다.

2) 적극적인 사고방식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정신적인 삶을 위한 강력한 방법입니다.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계 33개 국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를 국내에서도 만나 보십시오. 감동과 격려입니다.

3) 시와 찬미 Prayers  
영광, 미국의 유명한 목사, 신학자, 작가, 종교인들에게서부터 이끌어낸 평범한 사람에게서도 수많은 감동이 될 가운데에서 무성했던 수많은 시인들이 노래를 지어 주었다. 구하는 진실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도서 파고다 주문처(代) 277-1213

이 책들은 전국 유명 서점에서 있습니다. 읽어 보고 싶으시면 바로 사용해서 구입하십시오.











